

광주·전남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 광주일보 김지영 차장 편집부문 최우수상

김지영(사진) 광주일보 차장이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장필수)가 주는 '2017 올해의 기자상' 편집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7일 심사를 통해 김 차장의 '청년, 청년을 말하다'를 2017 올해의 기자상 편집부문 최우수상에 선정했다. 또 6개 부문에 걸쳐 13개 작품을 선정해 발표했다.

수상작 '청년, 청년을 말하다'는 지난 1년 동안 '헬조선' 시대에도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는 광주·전남지역 청년들의 이야기를 연재한 작품이다.

심사위원들은 "각 회마다 청년의 개성에 맞는 제목으로 이들의 꿈과 열정을 담아냈고, 생동감 있는 레이아웃이 이를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신문 통신 취재 분야 최우수상은 '인권에 눈감은 식당, 10대 알바생의 잔혹한 노동현실'(뉴스시내대희 기자), 우수상은 '시립오양병원 공익 제보자의 눈물'(무등일보 김대우 기자)이 각각 받았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1일 오후 7시 광주문화재단 별관 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전문화전당 가족 음악극 '작은악사'

국제 어린이 연극축제 연출상 등 4관왕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이 제작한 가족 음악극 '작은악사(A Little Musician)'가 지난 6일 오전 10시에 이란 하마단에 위치한 부알리 문화예술 콤플렉스에서 개최된 '제24회 국제 어린이·청소년 연극 축제'에서 최고의 영예인 '연출상'을 비롯하여 '음악상', '무대디자인상', '최우수 여배우상'을 수상했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이란 하마단에서 개최된 제24회 국제 어린이·청소년 연극 축제는 이란 드라마 예술센터가 매년 주최하는 전통 있는 어린이·청소년 축제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24회 축제에서는 총 13개국에서 공식 초청된 50개 작품이 공연됐으며, 그 중 ACC 창작제작극 '작은악사'는 지난 3일에 열린 3회 공연 전회가 매진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작은악사'는 우즈베키스탄 동화작가 '파르히지 라임 하키모비치'의 그림책 속 이야기로 떠돌이 악사인 주인공 모비치가 엄마처럼 따뜻함을 선물하는 햇살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은 작품이며 ACC의 '아시아스토리커뮤니티'사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작은악사'는 지난 10월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서 공연했으며 2018년에는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MBC 신입 사장에 최승호씨 내정

MBC 신입 사장에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내정됐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사장 후보 3명을 공개 면접하고 투표한 결과, 재직 이사 과반의 지지를 최씨를 신입 MBC 사장 내정자로 선정했다.

최 내정자는 이날 열리는 MBC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새 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13일 해임된 김장겸 전 MBC 사장의 잔여임기인 2020년 주주총회 때까지다. /연합뉴스

“소외된 이웃 돕고 詩로 세상 따뜻하게 보듬겠다”

시 전문지 '시와사람' 신인상 수상 공무원 김영진 주무관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복지 대상자를 돕는 일을 충실히 하는 한편, 시를 통해서 세상을 따뜻하고 깊게 보겠습니다.”

시 전문지 '시와사람'으로 등단한 공무원이 있어 화제다. 현재 광주시 남구청 여성복지과에 근무하는 김영진(44) 주무관이 주인공. 주씨는 2017년 계간 '시와사람' 신인상 공모에 '고속도로를 걷는 사내' 외 4편으로 등단하면서 오래도록 꿈꾸어왔던 시인이라는 '직함'을 갖게 됐다.

김 주무관은 “대학에서 시를 전공했지만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 유목민처럼 떠돌다 보니 시를 멀리했었다”며 “언제부턴가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서 유포하던 시라는 고래를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광주대 문장교) 졸업 후 지금까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해왔다. 1998년 민간 사회복지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하면서 현장 경험을 쌓았다. 2006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에는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복지대상자를 만나고 있다. 또

광주시 남구청 복지과 근무

직장생활 틈틈이 공부도 병행

대학시절 진월문학상 등 수상

“시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매개”

한 직장생활 틈틈이 공부를 병행해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이론과 실무를 갖췄다.

“사회복지 관련 일은 보람이 큰 분야입니다. 한편으로 다양한 복지 대상자를 대면하다보면 오히려 우리가 배우는게 더 많거든요.”

몇 년 전 잇따라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들이 자살을 한 적이 있었다. 김 주무관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만큼 무겁게 다가왔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인력 총원과 함께, 복지대상자를 바라보는 여유로운 시선과 자신을 가다듬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혔다.



그렇 만도 한 것은 세상은 날로 빠르게 변해 가고, 보이는 면이 중요한 가치가 돼버렸다. 오랫동안 시 쓰기를 열망했던 김 주무관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가치를 지향했으리라 짐작되는 대목이다.

신인상 심사위원들은 “고속도로를 걷는 사내”는 ‘속도’와 ‘욕망’으로 점철된 현실을 ‘멈출 수 없는 가속페달을 밟아라’에서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욕망을 향해 고속도로처럼 질주하는 사회의 모순을 비교적 잘 그려냈다”고 평했다.

김 주무관은 공직에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안했다고 한다. 돌아보니 그것은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을 외면한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싶다. 그는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즈음 엔지 모를 불안이 시를 쓰도록 호명했다”며 “그 고래(시)와 싸움을 하는 날들이 더없이 행복했다”고 언급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시절에는 시를 써서 4·3 문학상, 진월문학상을 수상했다. 또한 문학동아리 무등문학회에 들어가 창작활동도 열심히 했다.

“짧은 글인 시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해주는 매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자신을 수련하는 도구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는 버거운 일이 적지 않겠지만 시를 통해 저 자신을 다스릴 생각입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 9기 수료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이용두)이 세대간 소통과 미래세대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공동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제9기 수료식이 7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날 수료식에는 지난 5월 전국에서 선발된 제9기 239명 가운데 전체 교육과정을 이수한 217명과 제8기 재교육자 3명 등 모두 220명이 참가했다.

4.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이야기할머니들은 자원부터 교육과정까지 11개월 과정 무사히 마쳤으며 2018년부터 전국의 유아교육기관에 파견돼 재교육이 있는 우리 옛이

야기와 선현들의 미담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기존 활동 할머니와 교육강사, 제9기성적 우수자 등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한국국학진흥원장상도 수여됐다. 2009년 대구·경북권에서 시범 출몰한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이후 2012년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2017년 현재 2462명의 할머니가 7132곳의 유아교육기관에 파견돼 활동하고 있다.

내년에는 7700여개 유아교육기관에 2600여명의 이야기할머니 파견할 예정이다. 10기 모집은 내년 2월 공고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임흥근 대성건설 대표이사

주택산업 기여 산업포장



임흥근(사진) 대성건설(주) 대표이사가 8일 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2017 주택건설의 날' 행사에서 주택산업 발전과 국민주거수준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한다.

임흥근 대표이사는 건축엔지니어 출신으로 대학을 졸업한 이후 1994년까지 롯데건설, 호

반건설에서 종사했고 1994년 11월 대성건설을 창립한 이래로 최고품질의 쾌적한 주거환경 구현을 모티프로 아파트 브랜드 대성베르데 런칭 등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왔다. 친환경 건축물과 초고속정보통신 건축물 등의 인증을 취득, 올바른 주택문화 정착에 노력 현재까지 전국에 7100여세대의 주택을 공급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정광고, 교사·학생 소통 한마당 축제 열려

정광고등학교(교장 임형철)는 지난 4일 교내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정광고★ Do Dream!'을 주제로 제26회 정광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학생들만 즐기는 기존 축제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이 함께 소통하는 한마당으로 기획됐다. 교내 곳곳에 다양한 부스를 설치해 아침 식사를 거른 학생들에게 만두, 쥬스, 어묵 등의 분식을 판매하고 수익금 일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기부했다.

또 미술반과 사진반 동아리가 1년간 준비한 작품 전시회와 교사와 학생이 노래와 춤을 함께하는 공연도 열렸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부 행사



에서는 교사 3명과 학생 13명으로 구성된 난타부와 세월호의 아픔을 주제로 한 수화부, '맘마미아'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연극부의 공연이 이어졌다.

졸업생들로 구성된 '이카투스' 댄스팀과 밴드부 '하이드랜'의 연주도 선보였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여성경제인협 '행복의 김치나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회장 이숙희)는 생명의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와 공동으로 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과 불우 이웃을 위한 '행복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후원으로 광주지회 여성경제인 50여명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는 1500여 포기의 김장을 담가 독거 노인과 청소년 가장 세대, 백혈병 소아암 환자 가족 등 400여 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숙희 회장은 “김장김치 나누기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여성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 완수에 한발 더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는 150여 명의 회원이 여성 경제인의 권익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화축

▲주승기(㈜일광기업 이사)·고(故)김복선씨 아들 양준(베드르)군 조기원씨 딸 아연양=9일(토) 오후 1시 30분 광주 용봉동 성당.

▲강백수(전 KT 근무)·유남희씨 차남 우진(동명중 교사)군 신민호(서구청 세무 1과장)·오경임씨 차녀 혜수(송정서초 교사)양=9일(토) 오후 1시 30분 라페스타 4층 디아망홀.

▲최경탁·허정숙씨 차남 희동군 최일기·정정자씨 차녀 다영양=10일(일) 낮 12시 프라도호텔 웨딩홀.

▲김성윤(전 광주시청, 도시공사)·나선희씨 막내 민선군 박종암·오옥자씨 장녀 근영(불로초등학교)양=17일(일) 오전 11시 40분 더케이웨딩홀(구 광주교직원웨딩홀) 3층.

▲김영복(담양군 사이클연맹 회장)·김인자씨 장남 은성군 김연주·김서남씨 장녀 현아양=9일(토) 오전 11시 광주 상무지구 라뷰웨딩홀 3층 더 하우스홀(김대중컨벤션센터 맞은편 율리데이 인 프루호텔 옆).

동창회

▲정광중31회·정광고29회 송년회=8일(금) 오후 7시 월곡동 가곡회관 회장 김일근 010-5664-6503.

▲장성 동화초등학교 총동문회(회장 고구주)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9일(토) 오후 4시, 모교 체육관.

▲춘양초교 39회, 남교 5회, 중 1회 동창회(회장 박현수)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개최=9일(토) 오후 6시 삼영예식장 3층 062-654-1333.

▲동곡대 광주동문회 송년의 밤=12일(화)오후6시30분 일송정(광주일고 앞) 회비 3만원. 010-3600-6199.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

비(엠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출타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조 062-232-1313.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시 동구 준법로3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법원위탁 무료 치료=성요양병원

(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종친회

▲안동권씨 광주종친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9일(토) 오후 6시30분 무등산 중심사 주차장 입구 수자타 062-222-1145.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

장안쪽 관리사무소영 062-512-5788, 062-262-1542.

▲각화문화회집 프로그램 회원=바이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30분) 등 수시 회원 모집, 광주 북구 각화동 480-41번지 062-265-9337.

부음

▲김재남씨 별세 전수민·상귀·상옥·순자·춘자·추자·추지씨 모친상 흥경숙·이영진씨 시모상 박정만·김철수씨 빙모상=발인 8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謹 상가 故人の冥福을 빕니다 弔	
402호 故황익순 남(여/86세)	101호 故서인호 남(남/57세)
子/子婦 : 강영식/박미자, 현식/최영미 女/婿 : 서원지/민석연, 서원주 孫 : 김준희/박영기 孫婦 : 전진 • 발 인 : 12월 9일 • 장 지 : 화순동원선영	女/婿 : 서원지/민석연, 서원주 未亡人 : 최지향 • 발 인 : 12월 9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14 • 연락처 : 227-4000
102호 故채영신 남(여/71세)	
子/子婦 : 김원호/지숙연, 김현택, 김경석/이효정 女/婿 : 김민재/전금수	• 발 인 : 12월 9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5
함께 한 10년. 함께 할 100년 금호 장례식장 062-227-4000 www.mykumho.com	